

성령 강림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THE PENTECOSTAL SUNDAY

주후 2023년 5월 28일 오전 10시

인도: 김재우 장로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통일 53)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35 번 성령 강림(1)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 (Psalm) 146:1-5	고원희 집사
찬 양 Anthem	“참 좋으신 주님”	찬양대
설 교 Sermon	“소망의 하나님” (The God of Hope)	정재홍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488 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통일 53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정재홍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앞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삶의 염려로, 기쁨을 상실했고,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

우리의 죄와 영적인 무지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되어,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5:3-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개역개정 시146:5)

“Blessed is he whose help is the God of Jacob, whose hope is in the LORD his God.” (NIV Psalm 146: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28 (주일)	5/29 (월)	5/30 (화)	5/31 (수)	6/1 (목)	6/2 (금)	6/3 (토)
	신1	신2	신3	신4	신5	신6	신7
본문	시81,82	시83,84	시85	시86,87	시88	시89	시90
	사29	사30	사31	사32	사33	사34	사35
	요삼1	유1	계1	계2	계3	계4	계5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5/31수 오후7:30)	룻기 (1) - “삶의 역경” (룻1:1-5)
토요 새벽기도회 (6/3토 오전6:30)	데살로니가전서 (1) - “기독교의 대 진리”(살전1:1-3)

지난 주일(5/21) 말씀 – 하나님의 가정(3)

“주께 하듯 하라”(골로새서 3:18-25)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종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골3:18-25)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즉,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포함하며, 모든 사람을 주께 하듯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1)지금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2)지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또한 3)지금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심을 늘 기억하고 인식할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부터 항상 주님을 인식하며 살게 된다면, 어떻게 자기의 성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눈가림을 하고,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으며? 또한 어떻게 아랫사람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함부로) 갑질을 하며, 행패를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부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임을 깨달아,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신앙의 향기가 더욱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